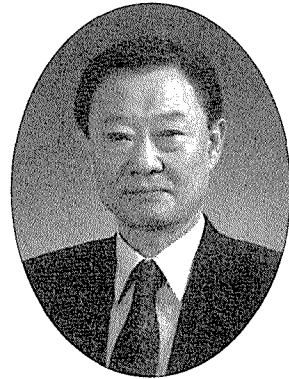




최근 국내 석유가격에 대한 설명



최 두 환
(대한석유협회 회장)

최근 국제유가는 미국 테러사태 이후 폭등할 것 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두바이유가 배럴당 20달러를 밑도는 등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소요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국제유가의 하락폭만큼 휘발유 등 국내유가 하락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연유에는 국내유가가 국제가격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밖에 환율등 여러가지 가격결정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유가결정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밝히고자 합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기본적으로 매일 국제가격 및 환율 등 객관적 자료를 국내유가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97.1월 유가자유화 이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제품가격, 국내외 수급상황, 수입업자, 경쟁(대체)연료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유가 조정은 공정위, 국회, 언론 등에 의해 지속적인 감시 대상이 되고 있으며, 1999년 및 2000년에는 공정위로부터 국내유가 담합관련 수 차례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정유사간 담합 또는 정부의 묵인/개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의 국내유가 수준을 살펴보면, 국제원유가격은 10월 현재 작년 동월대비 5.4\$/B하락하고, 환율은 177W/\$상승하였지만, 국내 정유사 세전공장도 가격은 휘발유 25W/l, 등유 및 경유가 각각 92W/l, 85W/l 씩 큰 폭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1월과 비교할때 국제원유가격 및 환율은 모두 상승하였지만, 국내유가는 전유종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국제원유가격이 10월초부터 19\$/B대까지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원유구매상 발생하는 수송기일 등으로 인해 당월 국제가 변동폭은 통상적으로 다음 달 국내유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제원유가격 및 세전공장도 비교

(단위: ₩/ℓ)

		2000.10월	2001.1월	2001.10월	2000.10월 대비	2001.1월 대비
Dubai(\$/B)		29.99	23.34	24.57	△5.42	1.23
환율 (₩/\$)		1126.11	1217.46	1302.85	176.74	85.39
세 전 공 장 도	휘 발 유	374.38	362.56	349.09	△25.29	△13.47
	실 내 등 유	417.10	404.92	325.50	△91.60	△79.42
	저 유 황 경 유	404.03	394.92	318.74	△85.29	△76.18

* 국제원유가 및 환율은 전전월 26~전월25일 기준 / ** 세전공장도는 한국석유공사 모니터링 가격 기준

다만, 등/경유의 경우 국제제품가격에 바로 연동하는 국내 Non-Brand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정유사 공장도가격도 국제제품가격 변동폭을 감안하여 수시로 가격을 조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에는 미테러 사태 이전부터 국제제품가격이 상승한 상태였기 때문에 등/경유 가격을 인상하였고, 10월 들어서

는 국제제품가격 하락폭을 감안하여 반대로 인하하였습니다.

휘발유의 경우에는 9월중 국제제품가격 상승에 따라 상당한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추석연휴 등을 감안하여 10월초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국제제품가격 변동 추이

(단위: \$/B, ₩/\$)

	7.26 ~ 8.25	8.26 ~ 9.21 *	9.22 ~ 10.25
MOPS Kero(등유)	28.9	32.0	26.3
MOPS G.O(경유)	28.4	29.9	25.9
MOPS Mogas(휘발유)	24.1	28.9	21.7
환율	1,300.9	1,300.4	1,317.5

* 등/경유 가격조정 기준

또한, 석유류에는 특별소비세(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원유도입시에도 관세와 수입부과금 등을 납부하고 있어 석유류의 세금수준은 상당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휘발유의 경우 10월 현재 소비자 가격중 세금비중은 69%에 달하고 있어, 국제유가 하락시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인하효과는 크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고 있으나, 실제 정유사들의 원가는 환율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제 이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환차손 발생으로 작년말에는 정유사들이 2,194억원이라는 큰 폭의 적자를 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정유업체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안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석유에너지의 안정공급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

더구나, 일부에서는 국제원유가 하락분만을 주시